

자녀교류, 사회적 교류, 고령친화적환경과 연령다양성의 관계: 연령집단별 분석

정 순 들
(이화여자대학교)

정 세 미*
(이화여자대학교)

이 미 우
(이화여자대학교)

본 연구는 자녀교류, 사회적 교류와 고령친화적 환경이 연령다양성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 연령통합적 사회구성을 위한 대안방안에 모색해보고자 진행되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만 45세 이상 응답자 6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65세의 연령을 기준으로 중년층과 노년층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두 집단 간 자녀교류, 사회적 교류, 고령친화적 환경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t-test를 사용하였으며, 연령다양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두 집단에 각각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령다양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 중년층과 노년층 모두 고령친화적 환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류에 있어서 중년층은 사회교류가, 노년층은 자녀의 교류가 연령다양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 연령다양성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차원에서 고령친화적 환경의 마련이 필요하며, 개인적 차원에서 중년층은 사회적 교류를 활발하게 하는 방안과 노년층은 자녀와의 교류가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연령통합인식을 연령다양성 관점에서 조망하였으며, 개인차원의 가족, 사회의 교류와 지역적 차원인 고령친화적 환경의 마련이 연령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탐색해 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주요 용어: 연령통합, 연령다양성, 자녀교류, 사회적 교류, 고령친화적 환경

이 논문은 2016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6S1.A3A2924582).
IRB No. 61-7

* 교신저자: 정세미, 이화여자대학교(vlsesemi@hanmail.net)

■ 투고일: 2017.4.30 ■ 수정일: 2017.6.21 ■ 게재확정일: 2017.6.26

I. 서론

고령화 시대와 함께 결혼과 출산의 시기가 늦어지고, 중년기 이후의 취업이 청년기에 비해 증가율이 높아지는 등 기존의 연령주기(life-span)와 그에 따른 역할과 시기는 점차 달라지고 있다. 연령주기의 변화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개인의 가족관계에서부터 교육, 일, 여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연령의 기준은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Riley & Riley, 2000). 그러나 생애기준은 변화하는데 반해 현재의 연금, 사회복지 정책 등은 기존의 생애주기모델인 연령을 기준으로하고 있어, 이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정순돌, 기지혜, 최혜지, 2015a, 최혜지 등, 2015a). 특히 우리사회는 곧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고령사회의 진입을 앞두고 있음에도 노인에게 대한 연령차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연령분절적 상황으로 인해 사회적 지체현상과 더불어 문화와 사회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정경희, 2004a). 이러한 한계점과 문제점에 대응하여 연령통합적인 사회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연구들도 진행 중에 있다.

연령통합사회에서는 노인은 젊은이에게, 젊은이는 노인에게 서로 간 영향을 주고받으며, 모든 연령대에 이익이 되는 사회를 추구한다(김경호, 2005). 연령통합사회는 Riley(1998)에 의해 그 개념이 소개된 이후, 연령통합구성을 위한 환경과 정책의 변화와 관련된 본격적 추진은 2002년 UN의 마드리드 “Society for all ages” 선언에서 시작되었다(Zelenev, 2006). 연령통합사회는 연령으로 인한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로, 연령으로 인해 교육이나 일자리 등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과 교류하는 사회를 말한다(Uhlenberg, 2000). 이러한 연령통합의 개념은 크게 연령유연성과 연령다양성으로 구분되는데, 연령유연성은 사회적인 제도가 연령을 기준으로 교육이나 일자리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사회적 기회가 균등한 사회를 뜻하며, 연령다양성은 다양한 연령대가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상호작용하는 사회를 뜻한다(Riley, 1998). 연령통합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연령유연성과 연령다양성을 구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에 연령통합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연령유연성에 초점이 맞춰진 경우가 많았다(정순돌 등, 2016a; 최혜지 등 2015b, 2016). 예를 들면 교육제도 내에서 연령장벽으로 인해 정규교육에 대한 참여가 제한된다거나, 고용시장에서 청년연령이

되면 은퇴라는 이름으로 노동시장 참여가 막히게 된다. 이러한 연령통합적 관점에서 OECD의 교육체계 및 고용시장관련 비교(최혜지 등, 2015b), 임금피크제와 고령근로자에 대한 연구(최혜지 등, 2016) 등이 진행되어 왔다. 이와 같이 사회참여와 관련된 연령장벽에 대한 연구들이 관심을 받아온 것에 반해 연령다양성에 대한 연구는 크게 관심을 받아오지 못했다. 연령다양성은 같은 연령이 아닌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으로 이미 가족 안에서 지역사회 안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현상일 수 있다. 가족이나 지역사회에서는 서로 다른 연령을 가진 구성원들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다양한 연령집단과의 경험은 개인의 다양한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연령통합에 있어서 중요한 영역이 된다(정순돌, 기지혜, 최혜지, 2015a). 따라서 연령통합을 연령다양성의 측면에 대한 연구가 요청된다.

연령다양성의 사회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의식의 변화, 실제적 제도와 환경의 변화, 개인의 가족이나 사회에서 다양한 연령의 교류 등이 나타날 때 이루어질 수 있다(김경호, 2005). 특히 연령다양성의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이 중요하다. 사회의 객관적 지표와는 다르게 사회구성원들은 사회의 객관적인 지표와 사회를 주관적 차원에서 다르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구성원의 주관적인 인식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우선희, 2017). 또한 연령다양성의 사회구성은 앞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사회의 모습으로 현재 개인이 느끼는 연령다양성 사회에 대한 인식은 향후 연령다양성의 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령다양성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인식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연령다양성의 인식은 서로 다른 연령간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교류, 세대통합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사람은 환경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서 생활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연령다양성에 대한 인식 역시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개인이 가족, 사회 내에서의 교류수준과 개인을 둘러싼 지역사회 환경의 수준이 연령다양성 인식과 어떠한 관계 나타내는 지를 살펴보는 것은 연령다양성 인식강화와 연령통합사회구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존에 연령통합인식에 있어서 가족교류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정순돌 등, 2016d)는 있었으나, 개인적 차원의 가족교류만 살펴보고 있을 뿐 교류의 사회적 차원이나 고령친화환경과 같은 다양한 구성요소를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제한적이다.

한편 연령다양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

므로 연령집단 간 비교가 필요하다. 즉 같은 연령층의 경우에는 생애주기 상 유사한 경험과 역할을 하게 되며, 시대적으로 같은 경험을 공유하기 때문에 다른 연령층의 가치관이나 인식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연령다양성에 대한 인식은 연령 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김윤정, 강인, 이창식, 2004). 또한 개인적 차원인 자녀교류와 사회적 교류 역시 중년층과 노년층의 경우 교류수준이 차이가 나타나며(임희규, 2011), 노인과 노인이 아닌 연령집단 간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이상철, 박영란, 정은화, 2016; Dannefer & Sell, 1988) 연령집단 간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실질적으로 교류하는 자녀 및 사회교류의 수준과 지역적 차원에서 고령화적환경 수준이 연령다양성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중년층과 노년층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연령다양성과 관련 요인에 대한 분석의 연령집단 간 차이는 향후 연령다양성을 통한 연령통합사회로 가기위한 대안 마련시 각 연령집단을 고려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함의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 및 사회교류, 고령친화적 환경, 연령다양성인식은 중년층과 노년층 간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연령다양성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중년층과 노년층 집단에서 다르게 나타나는가?

II. 선행연구

1. 연령다양성 인식

연령다양성은 연령통합의 하위개념으로 연령다양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연령통합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연령통합의 개념은 Riley(1998)에 의해 연령유연성과 연령다양성으로 개념이 구분되었으며, 연령통합적인 사회는 크게 여가, 근로, 교육의 영역에서 연령에 의해 분절적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연령이라는 기준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라는 의미를 갖는다. 연령유연성은 제도적

인 차원에서 근로나 교육 등의 참여에 있어서 연령으로 인한 제한이 없는 것을 의미하며, 연령의 다양성은 다양한 연령대의 서로 다른 세대가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것을 의미한다(정순돌 등, 2016a). 연령유연성의 사회에서는 정년퇴직의 나이가 존재하지 않으며, 대학에 입학하는 연령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는 것을 예를 들 수 있다. 연령다양성의 사회에서는 가정 내에서 손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컴퓨터를 가르쳐 주고, 조부모는 손자녀에게 예절 등을 가르쳐 주면서 상호간 교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나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 다양한 연령대와의 교류가 가능해지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정순돌 등, 2016c).

연령 간 다양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보면 사회구성원 간의 참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연령의 구분 없이 노인과 젊은이들 간에 지식과 기술의 전달과 과거의 유산과 경험이 함께 공유됨으로써 넓은 의미에서의 사회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됨을 뜻한다(정경희, 2004b). 또한 다양한 연령간의 교류는 노인과 청소년, 아동 등 서로 다른 연령대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켜 주며, 다른 연령대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려는 노력이나 공동체성과 같은 의식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Uhlenberg, 2000). 즉 연령다양성은 연령 간 상호작용을 강화시키고, 노인에 대한 연령차별적인 인식을 감소시켜 궁극적으로 사회적인 연대감이나 세대 간 통합에 도움이 된다(Harwood et al., 2005). 특히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사회에서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은 노인세대 만으로만 해결되지 않으며, 다양한 세대가 함께 해야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Zelenev, 2006) 사회 내에서 다양한 연령이 함께 어울려야 한다는 연령다양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연령통합적인 사회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거나 세대 간에 상호 이해가 높아져야 가능하기 때문이다(정경희, 2004b).

현재까지 한국사회는 연령다양성의 차원에서 볼 때 그 수준이 높은 사회라고 보기는 어렵다. 노인에 대한 젊은 사람들의 인식이 부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공공장소에서 다양한 연령이 모여 있는 것을 보기 어려운 사회이기 때문이다(이순희, 정승은, 2010). 그러나 고령화로 인해 노인인구가 많아지고, 노인들과 소통하거나 함께 교류해야 하는 일들이 중요해 지고 있어, 다양한 연령간의 상호작용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수 밖에 없다. 연령다양성의 측면에서 연령통합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연령유연성에 비해 연령다양성을 주제로 연구된 실증적인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연령다양성은 연령유

연성이나 연령통합이라는 개념보다 사회에서 이미 자연스럽게 인식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연령통합성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연령다양성 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노력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연령다양성과 관련된 실증적인 연구가 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정순돌, 기지혜, 최혜지, 2015a).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령통합의 개념 중에서도 연령다양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연령다양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교류, 고령친화적 환경과 연령다양성의 관계

생태체계이론에서는 사람은 개인과 개인을 둘러싼 체계, 환경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의 사고도 변화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강영실 등, 2016). 연령다양성 인식도 개인과 개인을 둘러싼 체계로 인해 영향을 받으며, 연령다양성 인식에 대한 실증적인 영향요인을 살펴보는데 있어서 생태체계이론에서 고려하는 다양한 차원을 고려하는 것은 연령다양성인식과 영향요인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특히 연령다양성과 같이 다양한 연령이 교류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세대에 대한 인식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교류수준이나, 지역적인 환경의 영향을 받으므로(김경호, 2005; 최유석, 2014), 이들 요인을 중심으로 연령다양성 인식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자녀와 사회적 교류와 같이 다른 연령간 교류가 활발할수록 다른 연령과 관련된 복지에 대한 정책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볼 때(Goerres & Tepe, 2010), 연령다양성 인식에 실질적인 개인의 교류의 수준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령친화적 환경과 같이 환경의 구성은 다양한 연령이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연령다양성 인식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영향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정순돌, 윤희수, 2014c). 이에 연령다양성 인식과 관련하여서 실제 개인적 차원의 교류와 고령친화적 환경의 지역적 차원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령 간에 살펴보는 것은 연령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복지적인 함의와 제언을 찾고자 하는데 중요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 개인적 차원의 교류는 자녀교류와 사회적 교류를 살펴보고자 하며, 환경적 차원에서는 고령친화적 환경을 중심으로 참여환경, 주거환경, 복지 및 보건서비스 환경이 연령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가. 개인적 차원: 자녀교류 및 사회적 교류

개인은 가족 간의 대화, 친구와의 교류, 사회 내에서의 사교활동이나 여가활동 등 다양한 비공식적 교류를 통해 개인적인 소속감을 느끼고,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개인이 느끼는 연령이나 사회통합적 차원의 인식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김경호, 2005). 가족은 구성원 내에서 구성원 간 연령이 다양함으로 인해 가족 내에서의 상호작용은 세대 간의 새로운 연대감을 형성하게 되는데 도움을 준다(정경희, 2004b).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가족 안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구성원이 증가하게 되고, 가족 내에서의 연령간의 교류는 더 활발해 질 수 있게 된다(정경희, 2004a). 특히 노인세대의 경우 체력저하, 세대 차이 등으로 인해 다양한 연령대와 교류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질 수 있지만, 가족이라는 범위 안에서는 구성원 간 교류가 가능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교류는 서로의 연령 다양성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이 될 수 있다(Uhlenberg & Gierveld, 2004). 실제 조부모와 동거한 손자녀는 노인에게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동거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높았으며(한정란, 2003), 손자녀를 돌보는 노부모들의 경우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이 완화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Uhlenberg, 2000). 성인자녀와 노인부모간의 세대 간의 애정이나 물질적인 지원은 노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순돌, 정세미, 김빛여울, 2016b; Öztop et al., 2009). 이러한 가족 내에서의 세대 간 교류는 연령이 높은 세대로부터는 지식과 경험이 전해져 연령이 낮은 세대의 사회화를 돕고 이러한 과정은 궁극적으로 사회적 통합에도 기여하게 된다(Armstrong, 2005). 즉, 가족에서 이루어지는 교류들은 다른 연령대의 구성원에 대한 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다른 세대에 대한 부정적 사고보다는 긍정적인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정순돌, 정주희, 2014b). 이러한 점에서 가족 안에서 조부모나 부모, 자녀 등 다른 연령대가 함께 어울려 살거나 대화나 관계를 맺는 등의 실제적 교류는 연령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다(Foner, 2000).

자녀와 같이 가족 내에서의 교류 외에도 사회적인 교류도 다양한 세대 간 접촉을 높이고, 다양한 여러 세대 간 교류는 연령에 대한 고정적인 이미지나 부정적인 편견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원영희, 2003). 특히 노인연령대의 경우 고정적인 연령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인 편이다. 어린아이들이나 경우에도 나이가 젊은 사람과 노인에게 대한 이미지를 비교했을 때 젊은이에 비해 노인에게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음을 볼 수 있다(Marks et al., 1985). 그러나 서로 다른 연령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경우 사회적인 교류를 통해 완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어린 아동들의 경우 노인들과 접촉하고 교류하는 것만으로도 노인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day et al., 1991). 또한 중고령층의 자원봉사와 같이 사회 환원적인 활동은 다른 연령층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지역 사회 내에서 연령차별적 시각을 개선하고, 다른 연령들과의 교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돕는다(Fried et al., 2004). 실제 개인이 종교 활동이나 정치적 참여활동 등 실질적 사회 참여를 하는 경우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더욱 크게 느끼게 되고, 공동체적인 인식 또한 더 큰 영향을 받게 된다(Ravanera & Fernando, 2003).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인 교류에 있어서도 연령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는데, 생애주기 상 중년기는 사회적 교류가 가장 활발한 시기이자 가족 간의 대화나 애정적인 관계도 가장 활발한 시기인 반면(Dannefer & Sell, 1988),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가족이 아닌 사람과의 네트워크는 점차 좁아들게 되어 연령이 높아질수록 타인과의 교류가 적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Uhlenberg & Gierveld, 2004).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연령다양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은 실제 개인이 자신의 가족이나 사회에서의 교류여부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나. 환경적 차원: 고령친화적 환경 중 참여환경, 주거환경, 복지 및 보건 서비스 환경

사회적 환경은 개인의 행위나 사고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Kennedy, 2010). 특히 개인에게 있어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데, 이러한 기회는 개인의 봉사, 경제활동 등 실질적인 교류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개인의 소속감을 증대시키고 나아가 개인의 행동이나 인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오찬옥, 김수영, 장수지, 2014; Ravanera & Fernando, 2003). 그러나 현 사회는 건강한 청장년층 중심의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환경은 중고령자 및 노년층의 참여와 접근을 제한하고, 다양한 세대 간 상호작용에 한계를 가져온다(정경희, 2004a). 문화 활동에 있어서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문화적인 욕구는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하고 문화에 대한 효율성은 떨어져,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특히 노인의 삶에 있어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Baltes & Smith, 2003).

특히 ‘고령친화도시’ 혹은 고령친화지역사회는 고령자에게 편리한 환경의 조성을 강조하지만, 이러한 환경은 결국 어린이나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인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연령대 사람들에게 편리한 환경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회통합적인 인식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Beard & Montawi, 2015). 고령친화도시는 구체적으로 활동적 노화가 가능한 도시정책, 서비스, 환경과 구조를 갖춘 도시로 개념화 할 수 있다(정순돌, 전혜상, 송아영, 2015c). 즉 고령친화도시에서는 노인이 활동적인 노후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데, 이러한 여건 하에서 노인들은 활발한 사회교류를 할 수 있어 다양한 연령 간 유대감 증진은 물론 나아가 연령다양성이 강화되어 연령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정순돌, 2014a; Biggs et al., 2015). WHO(2007)가 제시하는 고령친화환경의 요약해 보면, 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 서비스 환경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지역사회에 접근 가능한 참여환경(사회적 환경)과 노인이 거주 가능한 거주환경(물리적 환경), 정신적, 심리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복지와 보건환경(서비스 환경) 등은 노인의 삶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우선 고령친화적인 참여환경은 자원봉사와 취업, 여가활동 등 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이 이루어지는 환경이다.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과 이동이 편리할수록 노인의 사회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상철, 박영란, 정은화, 2016), 노인의 활발한 사회적 교류는 일상생활의 질을 높이는데도 도움이 된다(Lui et al., 2009). 특히 다른 요소들에 비해 고령친화적 참여환경은 노인의 심리사회적 노화(정순돌, 전혜상, 송아영, 2015c)와 연령통합인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정순돌 등, 2016a). 반면에 노인이 접근할 수 있는 위치나, 여가를 지원하는 시설이 부족한 경우 노인은 활동적으로 운동이나 여가활동을 하기 보다는 집에서 라디오와 TV시청 등 소극적 활동을 하게 되는데, 소극적 활동은 노인의 건강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에도 제한을 가한다(이영아, 진영환, 2001). 그리고 노인의 소극적인 사회적 관계 형성은 다양한 연령대와의 관계 단절이나 축소를 통해 소외감 증대는 물론 긍정적인 자아정체감 형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임호, 2012).

다음으로 고령친화적인 주거환경은 지역사회가 고령자나 모든 연령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가령 비용적인 부분이나 충분한 주택이 존재하는지, 다양한 고령자를 위한 거주시설이 있는지 등)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실질적으로 일반 고령자의 주거환경 인식은 적절한 비용을 들여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있는지에 대한 인식과 가깝다(Bigonnesse et al., 2014). 실제 고령자가 느끼는 노인을 위한 주거환경은 부정적인 편인데, 서울과 부산지역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지역 내 노인주택의 제공정도는 평균보다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노인을 위한 주거환경은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다(오찬옥, 김수영, 장수지, 2015). 그러나 고령자나 모든 계층이 지역사회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비용을 조정하거나 주거환경을 구성해주는 것은 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사회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며, 보다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Hudson, 1999). 또한 고령자를 포함하여 어떤 계층에게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다양한 연령집단의 거주를 통해 연령 간, 계층 간 부정적인 편견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령친화적 보건 및 복지서비스 환경은 지역 사회 내에 이용 가능한 보건소나 의료기관 등이 있는지, 그리고 이용에 있어서 노인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설명하는 지 등에 대한 내용이다. 고령친화적인 보건, 복지환경이 잘 구성되어 있는 경우 고령자가 이용하기 쉬울 뿐 아니라 고령자 외에도 다양한 세대 간의 만남도 가능해 진다(오찬옥, 김수영, 장수지, 2015; Chiou & Chen, 2009). 또한 의료기관과 복지서비스 기관에서 고령자가 이해하기 쉽게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하게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노력할수록 노인들은 사회적 교류와 통합적 인식에 긍정적인 경향을 보여준다(이상철 등, 2016). 특히 지역 내에서의 의료기관과 노인정, 주간보호시설 등 노인을 위한 지역차원의 인프라라는 거주하는 지역사회 안에서의 공공, 주민, 민간 등의 인적인 네트워크 구축과도 연결되며, 더 지속적으로 노인과 주민을 위한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게 한다(이영아, 진영환, 2001). 무엇보다 고령자가 보건이나 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 시설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을수록 이를 긍정적인 주거환경으로 인식하고, 생활스트레스 완충이나 복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다(Beard & Montawi, 2015).

결과적으로 환경이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적인 관계가 가능하도록 구성될 경우 사람들의 상호적인 이해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Cohen et al., 1987). 특히 고령친화적인 참여환경, 주거환경, 보건 및 복지서비스의 환경적인 측면이 잘 갖추어질 경우 다양한

연령 간 교류를 중시하는 연령통합성에 대한 인식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계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된 「2013년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식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조사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조사대상자는 7개 광역시 및 8개의 도 등을 포함하여 15개 지역을 중심으로 추출되었다. 자료 수집기간은 2013년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조사원들은 사전교육을 받았으며, 조사대상자와의 면접은 1:1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0세 이상의 데이터 중 자녀가 있는 연령층을 대상으로 자녀와의 교류에 응답한 45세 이상의 응답자 659명을 최종 연구대상자로 하였으며,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연령 기준인 65세 기준으로 중년층과 노년층을 구분하였다.

2. 측정도구

가. 종속변수: 연령다양성 인식

연령다양성은 정순돌 등(2015b)이 개발한 연령통합척도의 하위요인 중 연령다양성을 통해 측정하였다. 연령다양성은 여러 사회적 상황에서 다양한 연령간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사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것으로, 사회적 연령다양성(8문항)과 가족 내 연령다양성(4문항)의 하위개념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령다양성에 대한 항목 중 사회적 연령다양성과 관련하여서 ‘노인과 젊은이가 서로 이해하고 함께 어울리는 사회이다.’, ‘다양한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가 있는 사회이

다.',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질 수 있는 여가활동 프로그램이 마련되는 사회이다.', '한 교실/강의실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함께 공부하는 사회이다.' 등을 질문하였다. 가족 내 연령다양성과 관련하여서는 '노부모와 자녀 세대 간의 경제적, 물질적 지원을 더 주고받는 것이다.', '조부모, 자녀, 손자녀 세대가 함께 어울리면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조부모부터 손자녀 세대까지 다세대가 함께 살거나 인근에 사는 것이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은 1점(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에서 5점(매우 동의한다)의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연령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령통합 측정도구는 타당성이 검증되었지만, 하위개념 중 연령다양성 측정에 대한 도구타당성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통해 추정한 결과 $\chi^2=209.322(p=.000)$, $df=340$, $GFI=0.965$ $CFI=.952$, $RMSEA=0.05$ 로 수용할만한 적합성을 나타내어 이 척도는 연령다양성 인식 측정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순돌 등(2015b)의 연구에서 연령다양성의 신뢰도는 0.638-0.831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4$ 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나. 독립변수

1) 개인적 차원: 자녀교류 및 사회적 교류

개인적 차원의 교류는 자녀와의 교류와 사회적 교류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연령다양성 인식척도가 일반적 사회에서의 지역과 가족 내에서 연령의 다양성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에 관한 측정임에 반해, 개인적 차원의 교류척도는 실제 현재 응답자의 자녀와 또는 사회와의 교류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로 차이가 있다. 우선 자녀와의 교류는 Bengtson과 Schrader(1982)의 가족결속도 척도 중 부모-자녀와의 정서적인 교류를 중심으로 측정하는 애정적 결속도로 측정하였다. 기존의 연구(조병은, 1990; 오혜인, 주경희, 김세원, 2015; 정순돌, 정세미, 김빛여울, 2016b)에서도 부모-자녀와의 교류를 측정하고자 사용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자녀교류의 척도로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가 성인자녀(18세 이상)와 실제적인 정서적 교류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정자녀와의 교류가 아닌 전반적인 자녀와의 교류로 응답하

도록 되어 있다. 총 7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녀와 문제가 있을 때 상의를 하는가?’, ‘자녀들과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는가?’ 등 실질적 지원여부가 포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3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의 범위는 7-21점으로 나타났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 자녀 간 실제적인 정서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조병은(1990)에서는 Cronbach's $\alpha=.95$, 오혜인 등(2015)의 연구에서는 $=.69$ 로 나타나 기존 다른 연구에서도 척도의 신뢰도 수준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수준은 Cronbach's $\alpha=.69$ 로 나타났다.

사회적 교류는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척도 중 실제적인 사회지지정도를 나타내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이 척도에서는 사회 내에서 다른 사람과의 교류가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과 외출하거나 함께 시간을 보낸다.’, ‘다른 사람들로 부터 인생에 대한 유용한 충고를 듣는다.’, ‘몸이 아플 때나 건강에 대한 질문이 있을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등의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는 ‘1: 전혀 아니다’, ‘2: 거의 아니다.’, ‘3: 가끔 그렇다.’, ‘4: 자주 그렇다.’, ‘5: 항상 그렇다’의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해석은 점수가 높을수록 실제적인 사회적 교류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 수준은 각각 Cronbach's $\alpha=.90$ (김순이, 이정인, 2009), Cronbach's $\alpha=.75$ (정순돌, 정세미, 김빛여울, 2016b)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수준은 Cronbach's $\alpha=.75$ 로 나타났다.

2) 환경적 차원: 고령친화환경 중 참여환경, 주거환경, 복지서비스 및 정책

고령친화환경은 고령친화적인 참여환경과 주거환경, 그리고 복지서비스 및 정책 등 세 가지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가) 고령친화적 참여환경

고령친화환경 중 고령친화적 참여환경은 WHO(2007)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의 항목을 활용하여 구성된 척도로 고령자가 지역사회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환경적 조성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8문항으로, 현재 살고 있는 지역사회가 참여에 있어 어느 정도 고령친화적인지를 평가하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질문의 내용은 주로 ‘각종 행사 및 이벤트의 장소가 대중교통 수단을 통해

쉽게 접근 가능하며, 참여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다.', '노년층을 위해 지역사회의 각종 행사나 이벤트에 대한 정보(프로그램 내용, 교통편, 길안내)가 적절히 제공되고 있다.', '지역사회의 행사 및 이벤트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곳(레크레이션 센터, 학교, 체육관, 공연장, 도서관, 공원 등)에서 열리고 있다.' 등으로 구성된다. 척도는 1점(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참여환경이 고령친화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순돌, 전해상, 송아영(2015c)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3$ 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4로 나타났다.

나)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고령친화환경 중 고령친화적 주거환경은 WHO(2007)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의 항목을 활용하여 구성한 척도로 측정하였다. 즉 이 도구는 지역사회는 고령자가 거주하기에 적절한 비용의 주택을 제공하는지의 여부와 노인욕구를 반영하여 주거지원을 하는지의 여부로 측정하는 척도이다. 이 척도는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문의 내용으로는 '지역사회 내에 주택관리 및 지원서비스가 적절한 가격으로 충분히 제공된다.', '지역사회 내에 주거 수리 및 개조 비용은 적절한 가격에 충분히 제공되며, 제공자(수리공 및 관리자)는 노인의 욕구를 잘 이해하고 있다.', '우리 지역사회에서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은 깨끗하고, 잘 관리되어 있으며 안전하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노인들을 위해 적절한 가격으로 지역사회 내에 위치할 수 있는 주택이 충분하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는 1점(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현재 살고 있는 지역사회가 고령자가 거주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순돌, 전해상, 송아영(2015c)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7$ 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1으로 나타났다.

다) 고령친화적 보건 및 복지서비스 환경

고령친화환경 중 보건 및 복지 서비스 환경은 WHO(2007)의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의 항목을 활용하여 구성한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사회

가 고령자에게 적절한 복지와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평가한다. 이 척도는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문의 내용은 ‘노년층의 건강을 위한 각 종 보건복지의료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된다.’, ‘노년층 밀집 지역(퇴직자 전용아파트 등)과 장기요양보호시설은 지역사회 내에 위치하여 노인들이 지역사회에 연계될 수 있다.’, ‘보건복지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고 손쉽게 전달된다.’, ‘의료 및 복지 서비스 관련된 사람들은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친절하고, 도움을 주며, 잘 훈련되어 있다.’, ‘지역사회의 응급조치 대책은 노인의 대처능력, 취약성, 필요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적절히 세워진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는 1점(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현재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복지 및 보건서비스가 고령친화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순돌, 전해상, 송아영(2015c)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6$ 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7로 나타났다.

다. 인구학적인 변인

통제변수는 연령다양성, 교류, 고령친화도시 등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별, 교육기간, 월평균 수입, 직업유무, 자녀와의 동거유무 등의 변수를 선정하였다. 인구학적 변인에서는 교육기간은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으며, 직업유무와 자녀와의 동거유무는 ‘없음=0’, ‘있음=1’로, 성별은 ‘여성=0’, ‘남성=1’로 기입하였다. 또한 월평균 수입은 0-199만원=1, 200-399만원=2, 400-599만원=3, 600만원 이상=4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3. 분석방법

중년층과 노년층 집단별로 연령다양성 인식에 가족, 사회교류와 고령친화환경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SPSS 21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중년층과 노년층 집단 간의 연령다양성 인식과 교류, 고령친화적 환경 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t-test를 사용하였다. 또한 중년층과 노년층의 집단별로 가족 및 사회교류와 고령친화적 환경이 연령다양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 이전에는 주요 변수간 상관관계 및 다중공선성을 분석하여 분석이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성별, 교육받은 기간, 직업유무, 월평균수입, 동거자녀 유무 등을 조사하였으며, <표 1>과 같이 중년층과 노년층, 전체 연구대상자로 나누어 특성을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자는 총 659명이며, 이중 중년층은 260명이고 노년층은 39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년층의 평균 연령은 52.14세(SD=4.45)이며, 노년층의 평균연령은 68.51세(SD=4.40)로 나타난다. 성별을 중년층은 여성이 54.2%(141명), 남성이 45.8%(119명)으로 나타났으며, 노년층은 여성이 48.1%(192명), 남성이 51.9%(326명)으로 나타났다. 교육받은 기간은 중년층이 평균 13년(SD=2.43)으로 노년층 평균 9.34년(SD=3.40)에 비해 중년층의 교육기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의 유무를 살펴보면, 중년층의 74.62%(194명)와 노년층의 47.37%(189명)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수입을 살펴보면, 중년층의 경우는 월평균 수입이 400만원 이상인 경우가 전체 중년층의 63.46%(165명)로 나타난 반면 노년층은 월평균 수입이 400만원 이상인 경우가 전체 노년층의 13.79%(5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수의 경우는 중년층이 2.05명(SD=.55)이며, 노년층은 2.82명(SD=1.08)으로 나타났다.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중년층은 45명(17.3%), 노년층은 307명(76.9%)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중년층은 215명(82.7%), 노년층은 92명(23.1%)로 나타났다.

표 1. 연령별 인구사회학적 특성(n=659)

항목	구분	중년층 (N=260)		노년층 (N=399)		전체	
		N	%	N	%	N	%
성별	여성	141	54.2	192	48.1	333	50.5
	남성	119	45.8	207	51.9	326	49.5
교육 받은 기간(M, SD)		13.00	2.43	9.34	3.40	10.78	3.54
직업 유무	없음	66	25.38	210	52.63	276	41.88
	있음	194	74.62	189	47.37	383	58.12
월평균 수입	0 - 199만원	22	8.46	192	48.12	214	32.47
	200 - 399만원	73	28.08	152	38.10	225	34.14
	400 - 599만원	123	47.31	47	11.78	170	25.80
	600만원 이상	42	16.15	8	2.01	50	7.59
자녀 동거	없음	45	17.3	307	76.9	352	53.4
	있음	215	82.7	92	23.1	307	46.6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연령집단 간 차이

노인과 비노인 집단에 따른 주요변수의 차이는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연령다양성은 최소 16점에서 최대 54점의 점수분포를 나타내었으며, 전체 평균은 34.69점(SD=6.62), 중년층은 34.81점(SD=6.66), 노년층은 34.62점(SD=6.60)으로 나타나 두 집단 간 연령다양성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자녀교류는 최소 7점에서 최대 21점의 점수분포를 나타내었으며, 중년층은 평균 15.07점(SD=2.40), 노년층은 14.05점(SD=2.40)으로 나타나 중년층이 노년층에 비해 자녀교류가 보다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t=5.31, p<0.001$)으로 나타났다. 사회교류의 경우는 최소 3점에서 최대 15점의 점수분포를 나타내었으며, 중년층은 10.16점(SD=2.13), 노년층 9.55점(SD=2.01)으로 중년층이 노년층에 비해 사회적인 교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t=3.71, p<0.001$)으로 나타났다. 고령친화환경의 경우 참여환경, 주거환경, 복지 및 보건 서비스 환경 모두 중년층의 점수가 노년층에 비해 높았으나, 주거환경의 경우에만 중년층의 점수가 노년층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t=1.99, p<0.05$)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의 경우 교육받은 기간은 중년층이 노년층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t=15.021, p<0.001$)으로

나타났다. 또한 변수들의 정규성을 살펴본 결과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은 왜도는 3, 첨도는 10의 절대 값을 넘지 않으므로 변수의 정규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Kline, 2010).

표 2. 변수의 기술통계 및 연령층에 따른 변수의 차이

		최소	최대	왜도	첨도	중년층		노년층		전체		t
						M	SD	M	SD	M	SD	
연령다양성		16.00	54.00	.029	-.266	34.81	6.66	34.62	6.60	34.69	6.62	.36
교류	자녀교류	7.00	21.00	.061	-.020	15.07	2.40	14.05	2.40	14.45	2.45	5.31***
	사회교류	3.00	15.00	-.192	.017	10.16	2.13	9.55	2.01	9.79	2.07	3.71***
고령친화적 환경	참여환경	11.00	37.00	-.104	-.270	25.08	4.32	24.37	4.87	24.65	4.67	1.91
	주거환경	6.00	23.00	.217	-.436	14.52	3.53	14.00	3.12	14.20	3.29	1.99*
	보건 및 복지서비스	17.00	56.00	.088	.277	37.27	6.93	36.69	6.25	36.92	6.52	1.11
통제 변수	성별	0.00	1.00	.021	-.201							
	교육받은 기간	0	23	-0.39	0.45	13.00	2.43	9.34	3.40	10.78	3.54	15.021***
	직업유무	0.00	1.00	-0.33	-1.90							
	일평균수입	1	4	.384	-.860							
	자녀동거 유무	0.00	1.00	0.14	-1.99							

*p<0.05, **p < 0.01, ***p<0.001

3. 변수의 상관관계 및 다중공선성

변수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우선 종속변수인 연령다양성 인식과 독립변수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녀교류($r=.118$, $p<0.01$), 사회교류($r=.116$, $p<0.01$), 고령친화환경 중 참여환경($r=.407$, $p<0.01$), 주거환경($r=.342$, $p<0.01$), 보건 및 복지서비스($r=.413$, $p<0.01$) 등으로 모두 연령다양성 인식과 정적인 관계(+)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자녀교류와 사회교류가 많을수록, 고령친화적 환경수준이 높을수록 연령다양성 인식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연령다양성과 통제변수 간에는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자녀교류와 독립변수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사회

교류($r=.268, p<0.01$), 주거환경($r=.099, p<0.05$), 보건 및 복지서비스($r=.139, p<0.01$)로 나타났다. 사회교류의 경우 고령친화환경과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고령친화환경수준이 높을수록 사회교류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밖에 고령친화환경 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정적 관계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상관관계는 모두 .622($p<0.01$)로 나타나, 일반적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8이상 일 때 다중공선성이 있다고 생각하므로(김두섭, 강남준, 2008), 본 연구의 경우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VIF 값도 1.04-1.08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공차한계도 .65-.95사이의 범위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3. 변수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 연령다양성	1										
교류	2. 자녀교류	.118**	1								
	3. 사회교류	.116**	.268**	1							
	4. 참여환경	.407**	.031	.094*	1						
고령친화적환경	5. 주거환경	.342**	.099*	.090*	.458**	1					
	6. 보건 및 복지서비스	.413**	.139**	.121**	.554**	.622**	1				
	7. 성별	-.017	-.146**	-.041	-.048	-.020	-.070	1			
통제변수	8. 교육받은 기간	-.008	.100*	.074	.040	.129**	.043	.171**	1		
	9. 직업유무	.025	-.035	.018	.007	-.046	-.062	.422**	.247**	1	
	10. 월평균수입	-.013	.202**	.155**	.035	.169**	.092*	.022	.503**	.237**	1
	11. 자녀동거 유무	.015	.198**	.147**	.054	.091*	.030	-.060	.384**	.176**	.554**

* $p<0.05$, ** $p < 0.01$, *** $p<0.001$

4. 연령다양성인식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중년층과 노년층의 집단에서 연령다양성에 미치는 변인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교류에서는 자녀교류와 사회교류를, 고령친화적 환경으로 참여환경, 주거환경, 보건 및 복지서비스 환경을 독립변수로 하여 분석하였다. 인구학적 특성으로는 성별, 교육받은 기간, 직업유무, 월평균소득, 자녀동거 유무를 살펴보았다. <표 4>는 연령다양성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로 모델의 유의성은 모델의 적합도(F)와 설명력(adjusted R²)으로 살펴보았으며, 설명력의 변화량(ΔR^2)은 인구학적 특성이 연령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설명력에서 독립변수를 투입한 이후의 설명력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중년층을 살펴보면 F=8.397(p<0.001)로 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도 22%로 나타났다. 중년층 집단의 연령다양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고령친화적 환경 중 참여환경($\beta=.262$, $t=3.736$, $P<0.001$)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월평균소득($\beta=-.160$, $t=-2.506$, $P<0.05$), 보건복지 서비스($\beta=.153$, $t=2.126$, $P<0.05$), 사회적 교류($\beta=.116$, $t=2.016$, $P<0.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중년층의 경우에는 고령친화적 참여환경과 보건복지서비스의 수준이 높을수록, 월평균소득이 낮을수록, 사회적 교류가 높을수록 연령다양성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년층에서는 독립변수 중에서 자녀교류와 주거환경이 연령다양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년층을 살펴보면 F=13.180(p<0.001), adjusted R²=.233로 모델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도 약 24%로 나타났다. 노년층의 연령다양성 인식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우선 고령친화적 환경중 보건 및 복지서비스($\beta=.272$, $t=4.252$, $P<0.001$)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고령친화적 참여환경($\beta=.215$, $t=3.964$, $P<0.001$), 직업유무($\beta=.121$, $t=2.462$, $P<0.001$), 자녀교류($\beta=.092$, $t=2.059$, $P<0.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노년층의 경우 보건 및 복지서비스와 참여환경의 수준이 높을수록, 직업을 가지고 있을수록, 자녀와의 교류가 활발할수록 연령다양성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의 연령다양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중년층의 경우는 교류적 차원에서는 사회적 교류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노년층의 경우에는 자녀교류만이 연령다양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두 집단 모두 고령친화적 환경에서 주거환경은 연령다양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참여환경과 보건 및 복지서비스 환경은 두 집단 모두의 연령다양성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연령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년층			노년층		
		B	β	t	B	β	t
constant		10.477		2.797**	11.432		4.144***
교류	자녀교류	.141	.051	.880	.264	.096	2.059*
	사회교류	.362	.116	2.016*	.047	.014	.314
독립 변수	참여환경	.404	.262	3.736***	.292	.215	3.964***
	주거환경	.237	.126	1.690	.149	.070	1.211
	보건 및 복지서비스	.153	.159	2.126*	.288	.272	4.252***
성별		.556	.042	.628	-.322	-.024	-.488
인구	교육받은 기간	.213	.078	1.206	-.112	-.058	-1.234
학적 특성	직업유무	-.310	-.020	-3.307	1.601	.121	2.462*
	월평균수입	-1.202	-.160	-2.506*	-.215	-.025	-.493
자녀동거 유무		-.293	-.017	-.281	.393	.025	.519
R2(adjusted R2)		.252(.222)			.254(.234)		
Δ R2		.236***			.233***		
F		8.397***			13.180***		

*p < 0.05 , **p < 0.01, *** p < 0.0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중년층과 노년층의 집단 별로 개인적 차원인 자녀, 사회적 교류와 지역적 차원인 고령친화 환경수준이 연령다양성 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중년층과 노년층의 연령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자녀교류, 사회적 교류, 주거환경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 모두 중년층이 노년층에 비해 높은 점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층과 노년층의 연령집단별로 연령다양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환경적 요인에서는 두 집단 모두 참여환경과 서비스 환경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층의 경우 고령친화적 참여환경이, 노년층의 경우 고령친화적 보건 및 복지서비스 환경이 연령다양성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중년층은 사회적 교류가, 노년층은 자녀교류가 연령다양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한 사회복지 실천적, 정책적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우선 중년층과 노년층의 연령다양성 인식에 있어서 두 집단 모두 개인적 차원의 교류보다는 환경적 차원의 고령친화적 환경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친화적 참여환경은 두 연령집단의 연령다양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령친화적 환경 중 참여환경은 기존의 심리적 노화인식이나 연령통합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낸다는 선행연구(정순돌 등, 2015c; 정순돌 등, 2016a)와 일치하는 결과다. 따라서 연령다양성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령친화적 참여환경을 잘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고령친화적 참여환경은 반드시 노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연령과 장애유무와 관계없이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에 있는 도서관이나 체육관, 공원, 공연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연령들이 자유롭게 참여하여 연령 간 의사소통과 교류가 가능한 환경을 구성해야 하는 것이다. 즉,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싶은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이기 때문에, 반대로 노인이 아니기 때문에 공연, 여가, 운동과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는 등, 지역사회 내 프로그램 참여에 있어서 연령으로 인해 참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연령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 내 프로그램을 많이 활성화하는 방향도 고민될 수 있어야 하겠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이나 장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보나 대중교통을 통해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서 프로그램이 제공되거나,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교통수단의 제공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더불어 노인과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할 수 있는 대상이 기관에 이용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휠체어 제공, 엘리베이터 이용 등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

고령친화적 환경 중에서 보건 및 복지서비스 환경은 노년층의 연령다양성 인식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의 경우 다른 연령에 비해 건강 상 보건소와 병원과 같은 보건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연령다양성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나 보건소, 사회복지기관 등과 같은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복지전문가들은 지역사회의 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조사를 통해 부족한 서비스

인프라와 추가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해 파악하고 이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조성된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 이용과정에 대해 간편하고 알기 쉽게 설명문이나 안내문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접수에서부터 진료실 방문, 약을 처방받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보건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관련된 용어를 이해하고, 서비스 이용 장소를 찾아가는 것, 등록과 이용방법에 있어서 노인이 어려움이 없이 이용될 수 있도록 고령친화적 병원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중년층과 노년층이 모두 읽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안내문에서의 글자의 크기가 고려되어야 하며, 안내문이나 설명하는데 있어서의 용어도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용 과정을 도와주는 인력 및 안내 시스템 등이 갖춰지는 등의 방법도 예로 들 수 있겠다.

고령친화적 환경 중에서 주거환경은 중년층과 노년층 모두에게 연령다양성 인식에 모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의해 할 점은 주거환경이 연령다양성에 실제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문의 내용이 지나치게 주거공간에 대한 비용의 측면에만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노인이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거주하는 것 자체만으로 사회적 교류를 강화시키고 상호간의 이해도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볼 때(Cohen et al., 1987), 고령친화적 주거환경의 제공은 연령다양성 인식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결과가 갖는 한계로 향후 연구에서는 고령자가 살기에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인지, 다른 서비스자원을 이용하기 위한 접근성이 높은 주거지역인지, 다른 연령대와 공유하고 교류하는데 편리한 주거환경인지 등을 다양하게 점검할 수 있는 문항들이 추가될 필요가 있겠다.

한편, 개인적 차원인 교류는 연령다양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중년층과 노년층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중년층은 교류 중에서 사회교류만이 연령다양성 인식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친 반면, 노년층의 경우에는 자녀교류만이 연령다양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와의 교류가 노인에 대한 차별적인 시각인 연령주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선행연구(정순돌, 정주희, 2014)와는 다른 결과였지만, 노인의 심리적 노화와 연령통합인식의 관계에서 가족교류가 조절효과를 나타냈다는 연구결과(정순돌 등, 2016d)와는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중년층

에 비해 자녀교류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연령다양성 인식에 대한 영향에서는 자녀교류가 노년층에게만 유의미하게 나타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노인이 되면서 다른 연령집단과 교류하는 비율이 낮아지는 것은 매우 자연스런 현상이어서 연령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질 수 있지만, 이를 자녀를 통해 보완하게 될 경우 연령통합인식은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타인과의 교류가 낮아지는 노인들에게 있어 자녀와의 교류는 연령다양성 인식, 즉 연령통합성인식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노인집단에 있어서는 연령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족 간의 세대 내 교류를 강화시켜 나가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노인이 성인자녀나 손자녀 등 다른 연령세대와의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정순돌 등 (2016b)에서 제안한 SNS에 대한 교육이나 온라인을 활성화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겠다. 이 밖에도 노인과 가족의 가치관 차이나 의사소통을 보다 원활하게 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가족구성원이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서로 다른 가치관을 소유하고 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연령대의 가족원들을 이해하고 서로 유연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노인부모와 자녀세대에 대해 교육이나 캠페인 등을 통해 가족 내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교류를 활발하게 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겠다.

다음으로 중년층의 경우 노년층에 비해 자녀교류와 사회교류가 모두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연령다양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사회교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층의 경우 노년층보다는 가족적인 관계만큼이나 직장생활이나 다양한 사회적 참여를 통한 교류가 개인의 삶이나 인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조성숙, 서훈, 2011). 따라서 중년층의 연령다양성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직장생활이나 정치, 여가활동,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적인 관계를 활발하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단순히 사회적 관계의 양을 늘리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지만, 향후 노년기 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사회적 관계가 긍정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 세대 간의 긍정적 관계형성을 위한 의사소통교육 등도 실시하는 것도 방법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연령다양성 인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이 높지만, 본 연구는 횡단적 특성으로 인해 이러한 종단적인 특성을 담지 못했다는 점이다. 또한 고령친화적 환경에 대한 응답이 개인의 응답으로 인해 객관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더불어 고령친화적 환경 중 주거환경에 대해 다양한

측면을 담기보다는 비용이라는 한 가지 측면에만 주목하는 것과 같은 실제 조사항목이 갖는 한계로 인해 연구결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교류의 경우에도 자녀와 사회적 교류에 있어서 교류의 수나, 실제 기능적인 교류의 차원이나 교류의 질을 구분하여 살펴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연구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 가족과의 교류의 측면을 측정하기 때문에 연구대상자가 중년층과 노년층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연령다양성의 다양한 연령대의 영향요인을 설명하는데에는 그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교류와 관련되어 자녀의 연령, 성별과 같이 연령다양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통제변수의 설정이 필요하나, 2차 조사자료의 한계로 인해 변수가 조사되지 않아 통제변수의 설정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잘 반영하여 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연령통합적인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 연령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적 차원의 가족, 사회교류와 지역적 차원의 다양한 고령친화환경이 연령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순들은 미국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노인의 심리사회적 안녕, 노인가족, 노후준비, 사례관리이며, 현재 연령통합, 고령사회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sdchung@ewha.ac.kr)

정세미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관심분야는 노인복지, 가족 및 지역사회, 돌봄, 사회복지 실천 등으로, 현재 고령화 사회의 연령통합, 가족의 돌봄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vlsemi@hanmail.net)

이미우는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관심분야는 노인학대, 조사방법론 등으로, 현재 건강문해력(health literacy), 노인 정신건강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mousedumo@naver.com)

참고문헌

- 강영실, 김수정, 김주연, 문영희, 박상규, 박영숙, 신소정, 천정환, 황희숙. (2016).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서울: 도서출판 그린.
- 김경호 (2005). 연령통합의 관점에서 고찰한 노인복지 관련 실정법상 연령기준의 정책적 함의. **법과 정책연구**, 5(1), pp.553-582.
- 김두섭, 강남준. (2008). **회귀분석: 기초와 응용**. 파주: 나남.
- 김순이, 이정인. (2009). 노인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학대가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9, pp.231-242.
- 김윤정, 강인, 이창식. (2004). 청년 중년 노년세대별 노인에 대한 태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pp.65-75.
-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오찬옥, 김수영, 강동진. (2015). 노인의 관점에서 본 동네환경의 노인친화도.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4(2), pp.217-226.
- 오찬옥, 김수영, 장수지. (2014). 노인의 접촉 만남을 지원해 주는 근린환경 디자인 지표 개발.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3(2), pp.30-39.
- 오혜인, 주경희, 김세원. (2015). 연령주의에 관한 생태체계적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베이비부머와 노인세대의 차이 비교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68, pp.303-330.
- 우선희. (2017.3) 사회통합 인식 수준의 국제비교. **보건복지포럼**, 245, pp.24-36.
- 윌영희. (2003). 노인편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pp.275-296.
- 이상철, 박영란, 정은화. (2016). 노인이 인식한 고령친화 환경의 구성개념과 활동적 노화와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서울도시연구**, 17(2), pp.119-137.
- 이순희, 정승은. (2010). 차별에 대한 노인의 경험. **사회연구**, 19, pp.45-68.
- 이영아, 진영환. (2001). 노인을 위한 도시환경조성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 32, pp.77-93.
- 임호 (2012). 활력 있는 고령친화도시를 위한 정책제언. **BDI 정책포커스**, 155, pp.1-12.
- 임희규. (2012). 중년과 노년의 성공적 노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학**, 17(3), pp.85-99.

- 정경희. (2004a). 인구고령화와 연령통합 사회. *사회연구*, 5(1), pp.11-26.
- 정경희. (2004b). 고령화시대가 요구하는 사회구성원리: 사회문화적 지체현상의 극복을 위하여. *한국노년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 pp.48-59.
- 정순돌. (2014a). 연령통합과 고령친화도시.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pp.289-290.
- 정순돌, 윤희수. (2014c). WHO 고령친화도시 실현가능성 분석: 서울특별시 조례 분석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65, pp.109-130.
- 정순돌, 정주희. (2014b). 가족관련 요인이 연령주의에 미치는 영향-세대별 차이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45, pp.149-170.
- 정순돌, 기지혜, 최혜지. (2015a). 연령통합의 개념, 철학, 사회적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전문가 인식과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68, pp.161-186.
- 정순돌, 기지혜, 이은진, 최혜지. (2015b). 연령통합척도 개발 및 타당성 연구. *보건사회연구*, 35(2), pp.380-404.
- 정순돌, 전해상, 송아영. (2015c). 노인이 인식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정도가 노인의 심리 사회적 노화인식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6(3), pp.29-46.
- 정순돌, 정세미, 이미우, 임정숙. (2016a). 연령통합에 대한 인식 및 영향요인. *보건사회연구*, 36(1), pp.261-285.
- 정순돌, 정세미, 김빛여울. (2016b). 세대 내, 세대 간 교류가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세대 내 교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7(2), pp.253-280.
- 정순돌, 김주현, 송아영, 이해원, 주경희, 장철준, 최혜지, 전해상, 정세미, 이고은. (2016c). 연령통합: 새로운 사회구성의 원리. *고양 : 공동체*.
- 정순돌, 김민경, 김은주, 김주현. (2016d). 심리사회적 노화와 연령통합 인식: 가족주의와 가족결속의 조절효과 분석. *한국가족복지학*, 54(4), pp.187-224.
- 정순돌, 정주희, 김미리. (2016e). 연령주의와 연령통합이 세대갈등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령집단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8(4), pp.5-24.
- 조병은. (1990).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결속도와 노부모의 인생만족도. *한국노년학*, 10, pp.105-124.
- 조성숙, 서훈. (2011). 중년남성의 직장생활로가 배우자와의 관계가 성공적인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54, pp.211-235.

- 지은구, 이원주, 김민주. (2013). 한국형 고령친화도시 점검척도 개발연구. *사회과학연구*, 29(3), pp.459-489.
- 최유석. (2014). 세대 간 연대의식의 기반. *한국인구학*, 37(4), pp.61-87
- 최혜지, 박정화, 권미리, 정순돌. (2015a). 고령사회 대안 패러다임으로써 연령통합의 유용성에 대한 고찰: 연령통합의 영향에 대한 사회일반과 전문가 인식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7(3), pp.107-112.
- 최혜지, 전해상, 정순돌. (2015b). OECD 국가비교를 통해 본 노인 연령통합의 좌표와 유용성. *사회복지정책*, 42(2), pp.343-364.
- 최혜지, 전해상, 유영림, 정순돌. (2016). 연령통합적 관점에 기초한 임금피크제의 고령근로자 노동시장 통합 효과. *한국사회정책*, 23(2), pp.25-48.
- 한정란. (2003). 청소년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 연구. *한국노년학*, 23, pp.181-194.
- Aday, R. H., Sims, C. R., & Evans, E. (1991). Youth'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The impact of intergenerational partners.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10(3), pp.372-384.
- Armstrong, M. J. (2005). Grandchildren's influences on grandparents: a resource for integration of older people in New Zealand's aging society. *Journal of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3(2), pp.7-21.
- Baltes, P. B., & Smith, J. (2003). New frontiers in the future of aging: From successful aging of the young old to the dilemmas of the fourth age. *Gerontology*, 49(2), pp.123-135.
- Beard, J. R., & Montawi, B. (2015). Age and the Environment: The Global Movement Towards Age-Friendly Cities and Communities. *Journal of Social Work Practice*, 29(1), pp.5-11.
- Bengtson, V. L. & Schrader, S. (1982). Parent-child relations, pp.115-185, *In Research instruments in social gerontology(Vol.2): Social roles and Participation*, edited by D. Mangen & W. A. Peterso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Biggs, S., & Haapala, I. (2015). Age friendly environments. *Journal of Social Work Practice*, 29(1), pp.1-3.
- Bigonnesse, C., Beaulieu, M., and Garon, S. (2014). Meaning of home in later life

- as a concept to understand older adults' housing needs: Results from the 7 Age-Friendly Cities Pilot Project in Quebec. *Journal of Housing for the Elderly*, 28(4), pp.357-382.
- Chiou, S. T., & Chen, L. K. (2009). Towards age-friendly hospitals and health services. *Archives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 49, pp.S3-S6.
- Cohen, F., Bearison, D. J., & Muller, C. (1987). Interpersonal Understanding in the Elderly The Influence of Age-Integrated and Age-Segregated Housing, *Research on Aging*, 9(1), pp.79-100.
- Dannefer, D., & Sell, R. R. (1988). Age structure, the life course and aged heterogeneity: prospects for research and theory. *Comprehensive gerontology. Section B, Behavioural, social, and applied sciences*, 2(1), pp.1-10.
- Foner, A. (2000). Age integration or age conflict as society ages?. *The Gerontologist*, 40(3), pp.272-276.
- Fried, L. P., Carlson, M. C., Freedman, M. M., Frick, K. D., Glass, T. A., Hill, M. J. & Wasik, B. A. (2004). A social model for health promotion for an aging population: initial evidence on the Experience Corps model. *Journal of Urban Health*, 81(1), pp.64-78.
- Goerres, A., & Tepe, M. (2010). Age based self interest,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and the welfare state: A comparative analysis of older people's attitudes towards public childcare in 12 OECD countrie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49(6), pp.818-851.
- Harwood, J., Hewstone, M., Paolini, S., & Voci, A. (2005). Grandparent-grandchild contact and attitudes toward older adults: Moderator and mediator effect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1(3), pp.393-406.
- Hudson, R. B. (1999). The Role of Government in "A Society for All Ages". *Health and Social Work*, 24(2), pp.155-160.
- Kennedy, C. (2010). The City of 2050—An Age-Friendly, Vibrant, Intergenerational Community. *Generations*, 34(3), pp.70-75.
- Kline, R. B. (2010).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011. New

York: Guilford Press.

- Lui, C. W., Everingham, J. A., Warburton, J., Cuthill, M., & Bartlett, H. (2009). What makes a community age friendly: A review of international literature. *Australasian journal on ageing*, 28(3), pp.116-121.
- Marks, R., Newman, S., & Onawola, R. (1985). LATENCY AGED CHILDREN'S VIEWS OF AGING. *Educational Gerontology*, 11(2), pp.89-99.
- Marshall, V. W. (2007). Advancing the Sociology of Ageism: A Special Section. *Social Forces*, 86(1), pp.257-264.
- Öztop, H., Ener, A., Güven, S., & Doan, N. (2009). Influences of intergenerational support on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A Turkish sample.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37(7), pp.957-969.
- Ravanera, Z. R., & Fernando, R. (2003). Integration at Mid-Life: An Analysis of the General Social Surveys on Time, Use. *PSC Discussion Papers Series*, 17(9), pp.2-19.
- Riley, M. W. (1998). *The hidden age revolution: Emergent integration of all ages*. NY: Syracuse University. pp.1-23.
- Riley, M. W., & Riley, J. W. (2000). Age integration conceptual and historical background. *The Gerontologist*, 40(3), pp.266-270.
- Uhlenberg, P. (2000). Introduction Why Study Age Integration?. *The Gerontologist*, 40(3), pp.261-266.
- Uhlenberg, P., & de Jong Gierveld, J. (2004). Age-segregation in later life: An examination of personal networks. *Ageing and Society*, 24(1), pp.5-28.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7). *Global age-friendly cities: A guide*. World Health Organization.
- Zelenev, S. (2006). Towards a 'society for all ages': meeting the challenge or missing the boat.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58(190), pp.601-616.

Parent-Child Interaction, Social Interaction and Age-Friendly Environment on Age Heterogeneity: An Age Specific Group Comparison

Chung, Soondool

(Ewha Womans University)

Chung, Semi

(Ewha Womans University)

Lee, Miwoo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parent-child interaction, social interaction, and age-friendly environment on the perspective of age heterogeneity, and seeks measures for building an age integrated society. A total of 659 study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The middle-age group consisted of those aged between 45 and 64, and the old-age group consisted of those aged over 65. T-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to answer the research question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Age-friendly environment was a significant predictor in explaining age heterogeneity in both the middle-age and old-age groups. However, social interaction was only significant in explaining age heterogeneity in the middle-age group, while parent-child interaction was only significant in explaining age integration in the old-age group. As a result, establishing an age-friendly environment for both groups, interacting more actively with their children for the old-age group, and engaging in more social interactions with other people for the middle-age group could be suggested in order to strengthen the awareness of age integration. This study is meaningful that it examines age integ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age heterogeneity, and that it explores the influence of human interaction and age-friendly in an integrated context.

Keywords: Age Integration, Age Heterogeneity, Parent-Child Interaction, Social Interaction, Age-Friendly Environment